

선재동자들의 '깨어있는 휴식'

금산사·광주불교환경연대 여름생태학교 열어

방학을 맞은 선재동자들의 여름 잔치가 김제 금산사와 화순 쌍봉사에서 잇따라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8월 1~3일 '여름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8~10일 화순 쌍봉사에서 '별빛 따라 반딧불 따라'라는 제목의 제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열었다.

금산사 어린이 캠프에 동참한 42명의 선재동자들은 입재식 후 대법성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요가를 배웠다. 선재동자들은 금산사 마당에 직접 텐트를 치고 별자리 탐험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새벽 도량석에 일어나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명상으로서

작했다.

선재동자들은 마당을 쓸며 마음속의 사탕 생각도 쓸어 냈다. 모악산 자생차밭 답사와 계곡탐험 후 신나는 풀놀이를 즐기고 대나무풍, 나무토막, 양동이, 페트병 등을 두드리는 난타 공연도 체험했다. 간단한 불교교리를 배워보는 불교 골든벨을 울려라, '판소리 배우기' '목탁 치며 집중력테스트' '선체 조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부모님께 마음에 담은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성규(13·전주서신초 6)군은 "작년부터 참여하고 싶었다. 올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됐지만 꼭 참가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해 동참했다. 절마당 텐트에 누워 밤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 찾던 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캠프 지도법사 일강 스님은 "어린이들이 잠시라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공동체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화순 쌍봉사에서 열린 여름생태학교에는 35명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했다. 사찰예절과 쌍봉사 보물찾기 발우공양의 의미를 생각하는 빈그릇 알기, 새벽 숲길 명상, 단청장과 함께한 기와에 그림그리기, 생태체험, 미니트레킹 등으로 진행됐다. 화순 이불재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불교소설가 정찬주씨의 인도명상 이야기는 참가 어린이들에게 큰



화순 쌍봉사에서 열린 여름 생태학교에서 '기와에 그림그리기' 중인 어린이들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준비한 임상숙 사무처장(광주불교환경연대)은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준(9·광주송원초 2)군은

"평소 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환경보호,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빈그릇 운동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di@naver.com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

"보살의 손길로 보살필터"

삼복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복지관 이곳저곳을 살피느라 1인 5역으로 분주한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을 만났다.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전북에서도 오지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농촌 소읍에 위치한다. 전북에서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과 함께 불교계가 운영하는 단 두 곳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개관 1년도 안돼 일평균 이용인원이 300명이 넘는 알찬 복지관이 될 수 있던 것은 무공 스님의 보이지 않는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불보살님들의 자애로운 손길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가족,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들의 빛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방침을 이야기하는 무공 스님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스님은 서



아동학 전문가인 스님은 서울 삼천복지관에서 어린이 요가, 어린이 명상, 심리치료 상담, 치료 놀이 수업, 놀이치료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가이기도 하다. 운문사 출가 시절부터 체계적인 사찰음식을 익힌 스님은 대구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원 원장을 맡아 사찰음식 가족,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들의 빛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방침을 이야기하는 무공 스님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스님은 서

전북 완주 송광사 백련정 헌판식

8월 1일 사대부중 200여명 '축하'



8월 1일 연지 불사를 마치고 헌판법회를 봉행한 완주 송광사 백련정 모습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8월 1일 경내 연지(蓮池) 불사를 마치고 백련정(白蓮亭) 헌판법회를 봉행했다.

해강 스님(수원 팔달사 회주)을 비롯해 김완주 도지사, 임정엽 완주군수 등 사대부중 2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불자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해 백련정을 지었다. 일체중생이 백련처럼 청순한 영혼을

간직하고 일심으로 부처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수행의 터, 깨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고 법문했다. 헌판식 후에는 조선 마지막 황손이자 가수인 이석씨 등이 공연해 흥을 더했다.

한편 송광사는 2009년부터 대규모 백련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식 맞춤 포교 방편 고민해야"

군산 동국사 김응철 교수 초청법회 봉행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는 8월 7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를 초청해 '사찰 신도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김응철 교수는 "일제시대 일본 조동종의 포교소로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을 위해 장건된 사찰인을 감안해 동국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일본 신도조직 기본인 단

가제도 응용을 제시했다.

군산 포교의 문제점 진단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법을 구현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 부처, 신도 교육, 조직화 미흡, 불교 교육 기관 부재, 포교 전문가 및 스님 부족 등을 군산 포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유능한 스님들의 배치 및 포교훈련 필요성과 일요법회 등 법회운영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의 신행

활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사찰 신도 기본교육, 불교대학 설립 운영, 신도 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 단가 조직을 활용한 사찰 신도조직화 추진, 법등장, 법륜장, 법회장 등 조직 체계 구축,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핵심신도, 재가불자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김응철 교수는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종교 욕구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청룡사 재가불자 '포살법회'

조계종 하안거 대중결과와 포살

법회가 차분히 마무리 되는 요즘, 김제 청룡사(주지 월정)에서 재가 불자 대상의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8월 2일 열린 포살법회에는 가족 단위로 동참한 40여명 불자들이 동참해 조계종에서 배포한 <범법경

보살계본>을 갖고 포살법회에 동참했다.

한편 불자들은 포살법회 후 1080배를 시작으로 좌선 등 철야정진해 포살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찾아가는 복지관 될 것입니다"

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1978년 여고 졸업 후 바로 청도 운문사로 출가했다. 무공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 석사를,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 박사를 졸업한 엘리트 스님이다. 대구 불은사 주지와 경주 미소암 주지 소임을 맡았다. 강원에서 후학 지도를 바라는 은사스님을 설득해 사회복지사업을 택했다.

스님의 남다른 자비행과 원력으로 비구니스님으로는 처음 서울 삼천복지관 관장을 역임하고 6년간 대구불교방송(BBS) 신행상담을 진행했다. 경북 불교대학 상임법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아동학과 겸임교수도 지냈다.

났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대부분인 지역 실정을 감안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듭, 자수, 명석, 옹기 등 공예전을 기획해 수익을 얻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연계해 학교와 사찰, 지역사회가 함께 한 공동복지 서비스를 실현중이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주기적으로 실천하고 불교문화는 지역 곳곳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상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정안 하우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년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옥,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 공 통
 -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계, 천수대장타법, 도량계, 현좌계, 가영, 향수나열
 - 바 라 : 요장, 천수비라, 사다라니, 화의재비라
 - 나비춤 : 도량계, 다계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우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전범음대 출신)

- <불화, 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덧생살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공,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대학교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함장
경기도 양주시 화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법사과정 학생 모집

불교지도자 양성 및 포교를 목적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 합니다.

교 과 목	불교학과(기본)	풍수학과(선택)	역리학과(선택)
내 용	교리, 의식,한문	풍수학 이론 및 실제	역리학 이론 및 실제
교육기간	1-2년	6개월-1년	6개월-1년
교 수 진	자광 스님 서진아 스님	모성학 선생 외 2명	청봉선생 외 2명
비 고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제반의식	도선국사 이후 풍수대가로서 실제 입증 직강 및 현지 답사	30년 경력 정통 비법 전수

- ◆ 지방인을 위한 통신반 운영
- ◆ 전 형 : 서류접수(주민등본 및 이력서) 및 면접
- ◆ 개 강 일 : 2008년 9월 8일 (월요일)
- ◆ 강의시간 : 월·목 오후 1시 ~ 6시까지 (학과별 2시간)
- ◆ 문 의 : 031)448-088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사무소 옆(안양역과 명화역 중간)

安養 淨土寺 부설
大宇宙佛法師大學